



인쇄하기

닫기

머튼 MIT 석좌교수 "핀테크 성공위해 '신뢰'가 전략적 자산"

기사입력 2019/03/27 11:11 송고

노벨경제학상 수상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강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핀테크 산업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당국이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의 삼각형'이 형성돼야 합니다."



로버트 머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핀테크 등 혁신 금융산업 성공 조건으로 '신뢰'를 꼽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머튼 교수는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 신뢰, 소비자와 규제 당국 사이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규제 당국과 제공업체간 신뢰도 중요하다"며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과 제공업체 사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머튼 교수는 간편결제를 넘어 투자자문, 금융상품 추천 등 복잡한 금융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시스템 운영 원리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본질적 불투명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 불투명성'이 있는 분야는 충분한 검증과 고객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누가 신뢰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머튼 교수는 먼저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 "업체가 고객의 10년간의 금융정보를 자동분석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조언자로서 가치가 생긴다"며 금융업체가 가져야 할 신뢰를 "금융부문 전문성, 역량과 능력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머튼 교수는 "만약 고객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를 믿는다면 고객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업체가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자산을 어떤 경로로든 획득한다면 (핀테크) 기술 때문에 조언을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튼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자금이 급감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지수 움직임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늘어난 것을 보면 소비자 신뢰가 금융산업 판도에 주는 영향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머튼 교수는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규제 당국 문제도 심각했다"며 "투자자금이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로 이동한 것은 꼭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액티브 펀드 관계자들이 투자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머튼 교수는 규제 당국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의약품 시판 허가 과정은 일반인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그들이 승인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금융 규제 당국도 신뢰 수준을 제대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7 11:1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금융산업 바꾸는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신뢰’ ”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로버트 머튼 MIT교수 ‘핀테크와 금융’ 강연

“핀테크가 소비자 신뢰 얻는다면
기술에 대한 믿음이 커져 발전
규제 당국, 신뢰 생성 중요 역할”

■ “금융에서 신뢰가 중요하듯, 핀테크가
신뢰를 얻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큰 도약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머튼(75·사진) 미국 매사추세
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
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
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혁신은 기
존에 존재하는 모범 사례를 보는 것이 아
니라 앞에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머튼 교수는 “혁신은 미래에 있고 미래
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늘날 금융산업에서는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핀테크가 금융 산업을 바꾸고 있다”
고 진단했다. 금융 전문가인 그는 파생상
품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미래의 금
융 산업에 대해 신
뢰와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지목
하고 “모바일페이

등 지불 분야는 실험과 검증이 쉽다”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구글의 인공지능
(AI) 스피커에 ‘어디 투자하는 것이 좋겠
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2초 만에 ‘비트코

인에 100% 투자하세요’라는 답이 나온
다고 이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AI의 답을 듣고 이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AI의 판단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전문가가 AI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전문
가를 신뢰한다면 전문가는 AI를 이용해
고객에게 자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즉,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
뢰’라는 것이다. 그는 “핀테크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는다면 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커져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
다봤다.

머튼 교수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는 점을 상기하며 “규제 당국은 신뢰 생
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
적했다. 소비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
어나는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국 역시 모든 것을 감
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금융사
와 규제 당국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박세영 기자 go@

문화일보 **경제**

기사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7일

“금융산업 바꾸는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신뢰’”박세영기자 go@munhwa.com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로버트 머튼 MIT교수 ‘핀테크와 금융’ 강연

“핀테크가 소비자 신뢰 얻는다면
기술에 대한 믿음이 커져 발전
규제 당국, 신뢰 생성 중요 역할”



“금융에서 신뢰가 중요하듯, 핀테크가 신뢰를 얻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머튼(75·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범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머튼 교수는 “혁신은 미래에 있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늘날 금융산업에서는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핀테크가 금융 산업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전문가인 그는 파생상품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미래의 금융 산업에 대해 신뢰와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고 “모바일 페이 등 지불 분야는 실험과 검증이 쉽다”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에 ‘어디 투자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2초 만에 ‘비트코인에 100% 투자하세요’라는 답이 나온다고 이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AI의 답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AI의 판단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전문가가 AI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전문가를 신뢰한다면 전문가는 AI를 이용해 고객에게 자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뢰’라는 것이다. 그는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는다면 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커져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머튼 교수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규제 당국은 신뢰 생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국 역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규제 당국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문화일보 경제

기사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7일

“금융산업 바꾸는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신뢰’”

박세영기자 go@munhwa.com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로버트 머튼 MIT교수 ‘핀테크와 금융’ 강연

“핀테크가 소비자 신뢰 얻는다면
기술에 대한 믿음이 커져 발전
규제 당국, 신뢰 생성 중요 역할”

“금융에서 신뢰가 중요하듯, 핀테크가 신뢰를 얻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머튼(75·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범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머튼 교수는 “혁신은 미래에 있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늘날 금융산업에서는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핀테크가 금융 산업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전문가인 그는 파생상품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미래의 금융 산업에 대해 신뢰와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고 “모바일 페이 등 지불 분야는 실험과 검증이 쉽다”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피커에 ‘어디 투자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2초 만에 ‘비트코인에 100% 투자하세요’라는 답이 나온다고 이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AI의 답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AI의 판단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전문가가 AI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전문가를 신뢰한다면 전문가는 AI를 이용해 고객에게 자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뢰’라는 것이다. 그는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는다면 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커져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머튼 교수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규제 당국은 신뢰 생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국 역시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규제 당국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핀테크 성공위해 신뢰부터 얻어야"

김우보 기자 2019-03-27 16:06:12 기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오승원기자

"핀테크가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핀테크 등 혁신 금융산업 성공을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파생상품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머튼 교수가 신뢰를 강조한 이유는 투자자문 등 복잡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시스템 운영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머튼 교수는 "본질적 불투명성"이 있는 분야는 충분한 검증과 고객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누가 신뢰를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래의 금융 산업에선 신뢰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글 인공지능(AI) 스피커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물었는데 '비트코인에 전부 투자하세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누가 따르겠나"라고 말했다.

머튼 교수는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의약품 시판 허가 과정은 일반인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그들이 승인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금융 규제 당국도 신뢰수준을 제대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머튼 교수는 "만약 고객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를 믿는다면 고객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업체가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자산을 어떤 경로로든 획득한다면 핀테크 기술 때문에 조언을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기술만이 능사 아니다...핀테크 성공의 열쇠는 결국 신뢰"

입력시간 | 2019-03-27 04:48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술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핀테크(Fintech·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는 기술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결국 '신뢰'이지요."

◇금융석학 로버트 머튼의 뼈있는 조언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7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머튼 교수는 금융에 수학을 접목해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확 키운 금융 전문가다. '파생상품의 가치측정 방법론'으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지금은 미국 투자회사인 디멘셔널(Dimensional)에서 금융투자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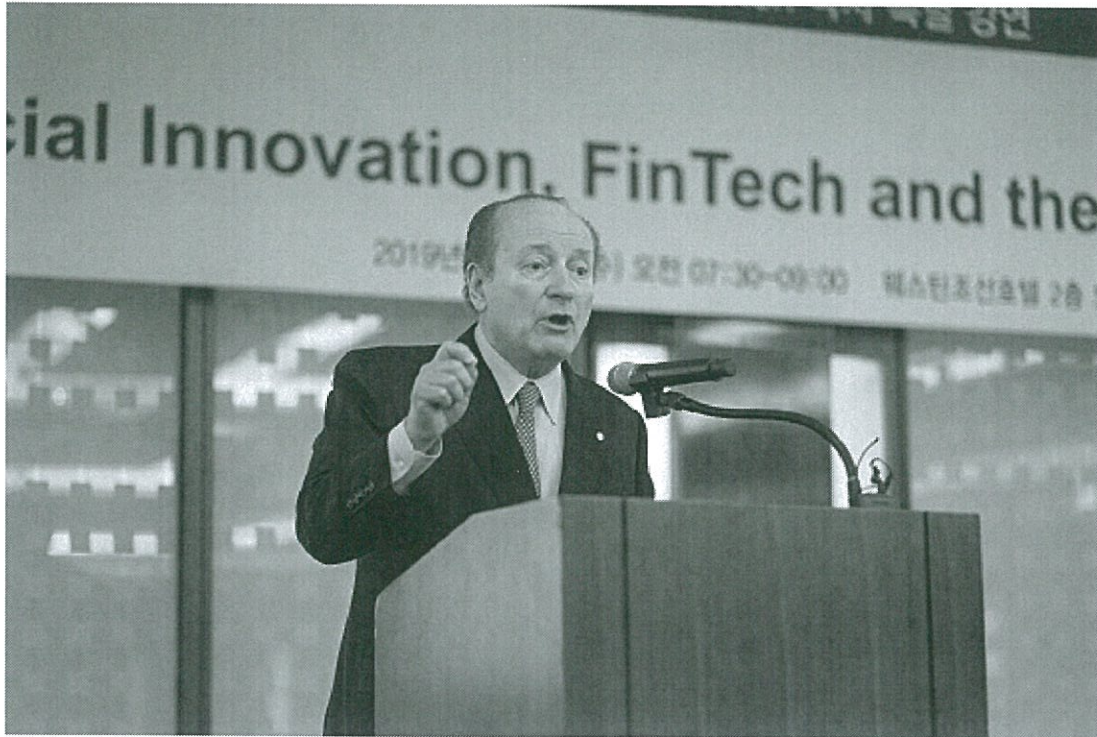
머튼 교수는 "금융시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금융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며 "금융 혁신은 성장의 밑받침"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핀테크는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등 금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만을 수반하는 핀테크는 결국 금융의 본질인 신뢰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음성인식 서비스인) OK구글에 접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력으로 믿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OK구글에 자산 투자 문의를 하고 OK구글은 '비트코인에 100% 다 투자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구글이 단순화한 투자자문 모델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모델에 무슨 데이터 등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금융 신뢰를 얻는다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머튼 교수는 그러면서 "복잡한 금융서비스에는 고객이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본질적인 불투명성이 있다"며 "그런 분야는 충분한 검증과 고객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기술 그 자체가 신뢰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명성 혹은 검증이 신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회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급전직하 했습니다.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된 '패시브펀드'에 수조달러가 유입됐어요. 반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는 자금이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수익률 하락을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액티브펀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어 "만약 고객이 금융사를 믿는다면 고객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는 “핀테크는 기술 그 자체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며 “복잡한 금융서비스의 본질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할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제공)

◇혁신성장 기치 내건 文정부 교훈될듯

머튼 교수는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의약품 시판 허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승인을 받았으니 복용해도 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고객과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금융당국이 서로 신뢰라는 ‘신뢰의 트라이앵글’이 형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머튼 교수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빠지는 조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오픈 API 등 혁신 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혁신을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술 모양새만 앞세운 생색내기라는 냉정한 평가도 없지 않다. “구성원은 그럴 듯한데 기존 시중은행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이다.

머튼 교수는 아울러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껏 경기 침체든 경기 과열이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며 “모든 걸 안전하게 가져간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모든 상황이 확

실하다면 화폐이론과 정부국채만 있으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머튼 교수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지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불투명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

“기술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핀테크(Fin tech·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는 기술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결국 ‘신뢰’이지요.”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7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머튼 교수는 금융에 수학을 접목해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확 키운 금융 전문가다. ‘파생상품의 가치측정 방법론’으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지금은 미국 투자회사인 디멘셔널(Dimensional)에서 금융투자자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양질의 금융시스템은 경제성장 밑받침”

머튼 교수는 “금융시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금융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며 “금융 혁신은 성장의 밑받침”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핀테크는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등 금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만을 수반하는 핀테크는 결국 금융의 본질인 신뢰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음성인식 서비스인) OK 구글에 접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력으로 믿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OK 구글에 자산투자 문의를 하고 OK 구글은 ‘비트코인에 100% 다 투자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구글이 단순화한 투자자문 모델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모델에 무슨 데이터 등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금융 신뢰를 얻는다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머튼 교수는 그러면서 “복잡한 금융서비스에는 고객이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불투명성이 있다”며 “그런 분야는 충분한 검증과 고객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기술 그 자체가 신뢰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명성 혹은 검증이 신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회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가 급전직하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핀테크는 금융을 편리하게 할 뿐
기술 뛰어나도 믿음 따라오지 않아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美 FDA가 승인하면 믿고 복용하듯
韓금융당국도 신뢰의 수준 높여야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패시브펀드’에 수조달러가 유입됐어요. 반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 운용하는 ‘액티브펀드’는 자금이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수익률 하락을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액티브펀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어 “만약 고객이 금융사를 믿는다면 고객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혁신성장 기치 내건 文정부 교훈될듯

머튼 교수는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의약품 시판 허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승인을 받았으니 복용해도 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고

객과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금융당국이 서로 신뢰라는 ‘신뢰의 트라이앵글’이 형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머튼 교수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빠지는 조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오픈 API 등 혁신 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혁신을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술 모양 새만 앞세운 생색내기라는 냉정한 평가도 없지 않다. “구성원은 그럴듯한데 기존 시중은행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 표적이다.

머튼 교수는 아울러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껏 경기 침체는 경기 과열이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며 “모든 걸 안전하게 가져간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모든 상황이 확실하다면 화폐이론과 정부국채만 있으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머튼 교수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불투명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남 기자 jungkim@

뉴스 > 경제

로버트 머튼, “핀테크 성공 핵심은 신뢰·투명성·검증가능성”

등록 2019-03-27 09:44:14 | 수정 2019-03-27 12:24:55

27일 세계경제연구원 강연 “혁신하려면 ‘모범 사례 따르지 말아야’”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핀테크와 금융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조찬 강연은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이뤄졌다. (뉴스한국)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석좌교수가 금융기술(핀테크) 성공의 핵심이 신뢰·투명성·검증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머튼 석좌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혁신이 성장의 밑받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모범 사례’가 혁신을 견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 사례는 뭔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혁신을 하려면 모범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봐야 한다”며 ‘신뢰’가 그 미래라고 강조했다.

머튼 교수는 “신뢰는 성공의 핵심 요소이지만 기술 자체로는 신뢰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기기에 탑재한 음성 인식 인공지능 비서 구글을 호출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아래는 머튼 교수의 말이다.

“제가 갤럭시에서 구글을 호출해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묻자 구글이 ‘비트코

인에 투자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치자. 그런데 제가 구글의 말 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할까. 만약 여러분은 기계의 투자 자문을 듣고 비트코인에 자산 전부를 투자하겠나. 삼성과 구글의 기술력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건 이 기술에 어떤 모델을 적용했는지, 인터넷에서 퍼온 정보를 활용했는지, 활용한 정보가 오염됐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양질의 모델이란 정보와 관련이 있다. 기술이 모델과 정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동기가 무엇이고 무엇을 배경으로 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살피지 못한다면 구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술 ‘이해’를 ‘신뢰’와 동일시하면 안 되지만 기술을 이해하면 이를 활용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머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신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손자·손녀를 전적으로 믿어도 금융 자문은 의뢰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금융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신뢰는 역량 즉 능력이고, 능력은 전문 지식이며, 신뢰하느냐 마느냐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머튼 교수는 “신뢰 자산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획득하는 주체가 시장에서 도태하지 않고 성장한다. 주식 시장에서 주주 한 명의 지분이 늘면 다른 한 명의 지분이 줄지만 금융 서비스는 다르다. 확장 가능성이 있다. 기술을 활용해 신뢰 자산을 늘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객이 늘어도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기술 때문에 금융 업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시나리오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머튼 교수는 “신뢰 자산이 있으면 투자 자문사는 더 성장하겠지만 어떻게 신뢰를 얻을지 해법은 기업가가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는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투명성’이다. 모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불투명하더라도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튼 교수는 금융 분야의 신뢰를 생성하는 데 있어 이른바 ‘신뢰 삼각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금융 서비스 제공업체·규제당국이 각 꼭짓점이고 각 꼭짓점을 잇는 변은 신뢰 관계를 말한다.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 간 신뢰, 소비자와 규제당국 간 신뢰, 규제당국과 업체 간 신뢰 모두 중요하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규제당국이 신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규제당국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장이 교착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으로부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머튼 교수는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를 어떻게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처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불확실성이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불확실성이 없다면 저는 2시간 동안 금융에 관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게 확실하다면 금융시장에는 정부 채권과 화폐만 있으면 된다”며, “금융은 통찰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가 굴러가도록 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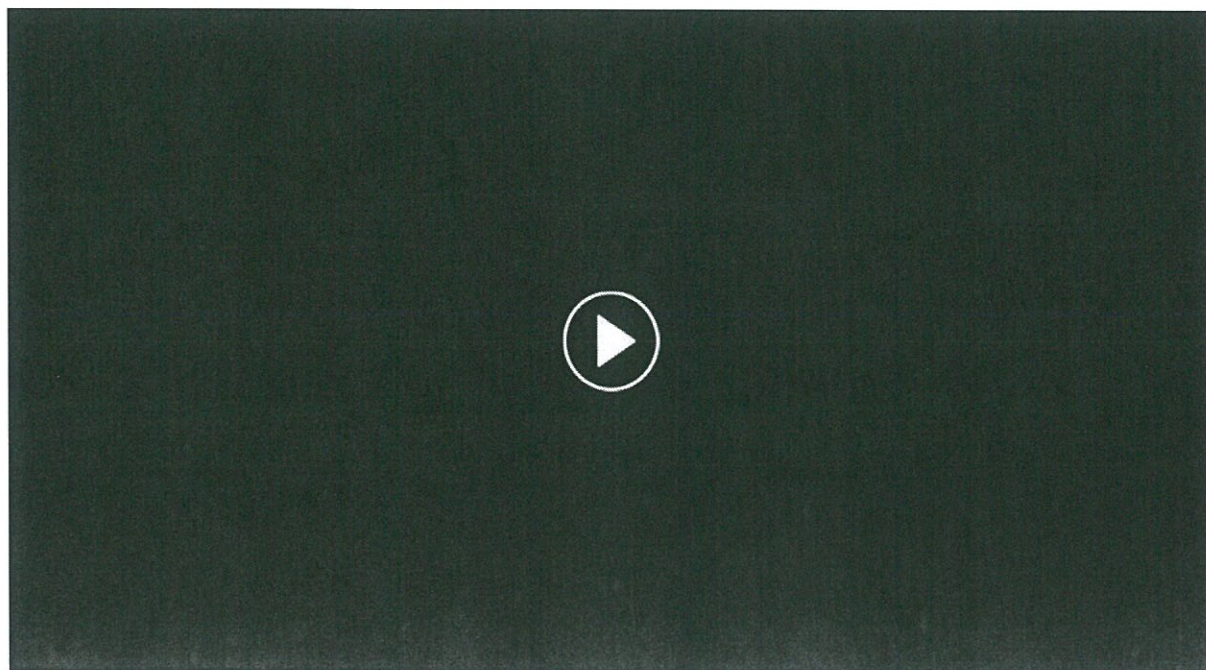
COPYRIGHT © NEWSHANKUK.COM, INC. ALL RIGHTS RESERVED.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이데일리N] 머튼 MIT 석좌교수, 금융산업 성공 조건은 '신뢰'

입력시간 | 2019-03-27 04:27

[이데일리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머튼 교수가 금융산업의 성공의 조건으로 신뢰를 꼽았습니다.

로버트 머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석좌교수는 오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 신뢰, 소비자와 규제 당국 사이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규제 당국과 제공업체간 신뢰도 중요하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대화하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오승현 기자 2019-03-27 09:03:27 경제마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오른쪽)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머튼 교수는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을 했다./오승현기자 2019.3.2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

오승현 기자 2019-03-27 09:00:27 경제마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3.2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조찬강연

오승현 기자 2019-03-27 09:01:15 경제·마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3.2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연하는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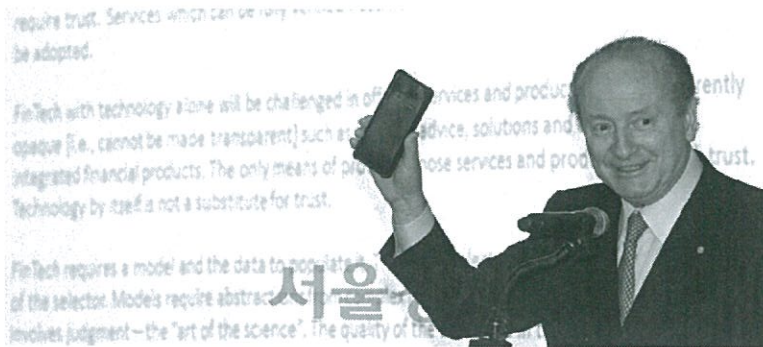
오승현 기자 2019-03-27 09:00:52 경제마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3.2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강연

오승현 기자 2019-03-27 09:02:25 경제마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3.2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 강연

오승현 기자 2019-03-27 09:01:37 경제마켓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 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3.2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3.28.
목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 세계경제연구원초찬 강연

“기술만이 능사가 아니지. 핀테크(Fin tech·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는 기술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결국 ‘신뢰’이지요.”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27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초찬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머튼 교수는 금융에 수학을 접목해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확 키운 금융 전문가다. ‘파생상품의 가치측정 방법론’으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지금은 미국 투자회사인 디멘셔널(Dimensional)에서 금융투자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양질의 금융시스템은 경제성장 밑받침”

머튼 교수는 “금융시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금융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한다”며 “금융 혁신은 성장의 밑받침”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핀테크는 시간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등 금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만을 수반하는 핀테크는 결국 금융의 본질인 신뢰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음성인식 서비스인) OK구글에 접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력으로 믿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OK구글에 자산투자 문의를 하고 OK구글은 ‘비트코인에 100% 다 투자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구글이 단순화한 투자자문 모델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모델에 무슨 데이터 등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금융 신뢰를 얻는다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머튼 교수는 그러면서 “복잡한 금융서비스에는 고객이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불투명성이 있다”며 “그런 분야는 충분한 검증과 고객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기술 그 자체가 신뢰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명성 혹은 검증이 신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튼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회고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가 급전직하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머튼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초찬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핀테크는 금융을 편리하게 할 뿐
기술 뛰어나도 믿음 따라오지 않아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美 FDA가 승인하면 믿고 복용하듯
韓금융당국도 신뢰의 수준 높여야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패시브펀드’에 수조달러가 유입됐어요. 반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 운용하는 ‘액티브펀드’는 자금이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순히 수익률 하락을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액티브펀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어 “만약 고객이 금융사를 믿는다면 고객마다 다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혁신성장 기치 내건 文정부 교훈될듯

머튼 교수는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의약품 시판 허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승인을 받았으니 복용해도 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신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고

객과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금융당국이 서로 신뢰라는 ‘신뢰의 트라이앵글’이 형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머튼 교수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빠지는 조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오픈 API 등 혁신 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혁신을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술 모양새만 앞세운 생색내기라는 냉정한 평가도 없지 않다. “구성원은 그럴듯한데 기존 시중은행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이다.

머튼 교수는 아울러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껏 경기 침체든 경기 과열이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며 “모든 걸 안전하게 가져간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모든 상황이 확실하다면 화폐이론과 정부국채만 있으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머튼 교수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지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불투명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남 기자 jungkim@

“금융산업 바꾸는 핀테크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신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로버트 머튼 MIT교수 ‘핀테크와 금융’ 강연

“핀테크가 소비자 신뢰 얻는다면
기술에 대한 믿음이 커져 발전
규제 당국, 신뢰 생성 중요 역할”

■ “금융에서 신뢰가 중요하듯, 핀테크가
신뢰를 얻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큰 도약
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머튼(75·사진) 미국 매사추세
츠공대(MIT) 석좌교수가 27일 오전 서
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혁신,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경
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혁신은 기
존에 존재하는 모범 사례를 보는 것이 아
니라 앞에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머튼 교수는 “혁신은 미래에 있고 미래
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늘날 금융산업에서는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핀테크가 금융 산업을 바꾸고 있다”
고 진단했다. 금융 전문가인 그는 파생상
품 가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미래의 금
융 산업에 대해 신
뢰와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지목
하고 “모바일페이

등 지불 분야는 실험과 검증이 쉽다”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구글의 인공지능
(AI) 스피커에 ‘어디 투자하는 것이 좋겠
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2초 만에 ‘비트코

인에 100% 투자하세요’라는 답이 나온
다고 이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
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튼 교수는 “AI의 답을 듣고 이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AI의 판단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전문가가 AI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전문
가를 신뢰한다면 전문가는 AI를 이용해
고객에게 자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즉,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 그 영역을
확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신
뢰’라는 것이다. 그는 “핀테크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어야 하고 신뢰를

얻는다면 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이 커져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
다봤다.

머튼 교수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금융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는 점을 상기하며 “규제 당국은 신뢰 생
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
적했다. 소비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
어나는 모든 행위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국 역시 모든 것을 감
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금융사
와 규제 당국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박세영 기자 go@